

일본 · 미국 · 호주 감 시장조사

2023.06.



2023년 6월 19일자 매매기준율(하나은행) 적용
1 USD(달러) = 1,282.00원, 1 JPY(엔) = 9.04원, 1 AUD(호주달러) = 880.61원

[목 차]

I. 일본 뚝은감 시장현황	4
1. 생산현황.....	4
2. 유통 및 소비현황.....	5
3. 수출입현황.....	8
4. 통관 및 수입제도.....	11
II. 미국 뚝은감 시장현황	13
1. 생산현황.....	13
2. 유통 및 소비현황.....	13
3. 수출입현황.....	17
4. 통관 및 수입제도.....	19
III. 호주 단감 시장현황	22
1. 생산현황.....	22
2. 유통 및 소비현황.....	23
3. 수출입현황.....	26
4. 통관 및 수입제도.....	29
IV. 시사점	32

일본 · 미국 · 호주 감 시장조사

1. 일본 뽕은감 시장현황

- 자국산 신선감 및 건조감(곶감)에 높은 수요
 - * 산지 및 품종을 강조한 제품의 인기가 높으며 다양한 용도로 소비
 - * 한국산 또한 감말랭이, 냉동 반건시 유형의 제품이 산지(청도 등)를 강조
- 신선감 1만 6,000달러(한화 약 2,051원), 건조감 306만 1,000달러(한화 약 39억 2,420만 원) 수입('22)
 - * 한국산은 신선감(25.0%) 및 건조감(41.0%) 모두 수입상위 2위로 상당한 비중

2. 미국 뽕은감 시장현황

- 낫선 후숙 처리와 맛, 식감으로 낮은 인지도는 점차 향상 중
 - * 자국(미국)산은 완전 건조한 단단한 건조 제품 위주인 반면, 한국산 및 일본산은 곶감, 감말랭이 등 부드러운 제품 위주인 것이 특징
- 신선감 347만 달러(한화 약 44억 4,854만 원), 건조 과실류 4,372만 9,000달러(한화 약 560억 6,057만 원) 수입('22)
 - * (신선감) 스페인산(48.4%), 이스라엘산(28.1%) 등 수입하며 2020년 이후 한국산 수입하지 않음, (건조 과실류) 중국산(43.0%), 태국산(11.2%)과 경쟁하며 한국산은 2.2% 비중 차지

3. 호주 단감 시장현황

- 한국산 곶감, 반건시 등 대도시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유통
 - * 주요 경쟁국은 호주산 및 일본산, 특히 일본산은 프리미엄 인식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
- 신선감 189만 4,000달러(한화 약 233억 4,290만 원), 건조 과실류 1,248만 6,000달러(한화 약 160억 705만 원) 수입('22)
 - * (신선감) 뉴질랜드산(99.0%) 수입 압도적, (건조 과실류) 중국산(39.0%), 태국산(14.5%) 위주 수입하며 한국산은 0.3% 비중

4. 시사점

- 국가별 상이한 감 유통 및 소비현황에 유의하여 수출전략 수립 필요

I. 일본 딸은감 시장현황

1. 생산현황

□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생산량 증대에 힘쓰며 감 생산성 증대

- 2022년 일본은 21만 톤 이상의 감을 생산하였으며 최근 5년간 생산면적이 감소함에도 단위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
 - 와카야마(19.4%), 나라(13.7%) 등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생산하며 ‘부유(富有)’, ‘지로(次郎柿)’ 등 단감 품종의 생산비중이 높음
 - 딸은감 생산품종으로는 ‘평핵무(平核無)’, ‘도근조생(刀根早生)’, ‘갑주백목(甲州百目)’ 등을 생산하며 단감 품종 대비 생산비중은 적은 편

〈표 1-1〉 일본 감 생산량 및 재배면적(2018~2022)

(단위: 톤, ha,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생산량(톤)	208,000	208,200	193,200	187,900	216,100	15.0	1.0
출하량(톤)	172,200	175,300	165,900	162,300	185,900	14.5	1.9
재배면적(ha)	19,100	18,900	18,500	18,100	17,800	-1.7	-1.7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 2017년 기준 곱감(干し柿) 약 8,292톤 생산하였고, 일본 내 공급된 물량은 20,583톤 가량¹⁾
 - 곱감은 나가노(47.9%), 후쿠시마(14.1%), 도야마(12.7%) 등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며, 나가노현에서 생산하는 품종인 ‘이치다(市田)’의 비중이 95% 이상으로 단맛과 쫄깃한 식감이 특징
- 일본 농림수산성(MAFF)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에 근거하여 각 지방정부는 「과수농업진흥계획(果樹農業振興計画)」을 수립
 - 농림수산성은 품종 개발과 농업 기계화 등 생산기반 확대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 배정과 재해 대책을 수립
 - 대표 산지인 와카야마현은 출하시기 집중으로 인한 시장가격 저하를 방어하기 위해 만생종 육종 연구 및 보급 지원과 생산성 및 수익 증대를 위한 기계 보급 및 가공품 생산 지원제도를 시행²⁾

1) 일본 통계청(www.e-stat.go.jp)

2)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2. 유통 및 소비현황

□ 9월 말부터 감 출하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유통

-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생산된 감은 ‘농가 → 농협(선과장) → 도매시장 → 소매업체 및 외식업체 → 소비자’ 순으로 유통
 -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된 감은 도매시장과 소매업체, 외식업체 등으로 곧바로 공급되는 형태
- 도매 공급되는 물량은 출하되는 10~11월 집중되며, 이 시기 평균가격은 kg 당 236엔(한화 약 2,134원)에서 272엔(한화 약 2,459원) 수준

<표 1-2> 일본 감 월별 도매물량 및 금액(2022)

(단위: 톤, 백만 엔, 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물량(톤)	282	73	1	0	0	0.3	19	57	2,731	10,271	7,977	3,034	24,445
금액 (백만 엔)	138	41	0.6	0	0	0.2	12	41	1,045	2,796	1,884	781	6,739
평균 가격(엔)	487	561	459	-	-	1081	640	723	383	272	236	257	276

*출처: 일본 도쿄 중앙도매시장(www.shijou-tokei.metro.tokyo.lg.jp)(검색일: 2023.06.15.)

□ 자국산 신선 및 건조감에 대한 공급 및 수요 매우 높은 편

- 뚝은감의 경우 오프라인 소매 유통채널을 통해 그 자체로 유통되는 비중이 적은 편
 - 슈퍼마켓 등 소매 채널에서는 단감을 주로 판매하며 뚝은감은 건조 또는 가공하거나 뚝은 맛을 제거하는 탈삼 과정을 거쳐 판매
 - 건조감을 생산하는 JA전농 소속 농장에서는 ‘수확→껍질제거→1개월 건조→수분 균질화→건조→검사 및 포장’의 과정을 거쳐 출하³⁾
 - 신선 뚝은감은 산지에서 일반 소비자에게로 직송하는 유통 형태를 보이며, 후숙 또는 건조 후 섭취할 것을 권장
- 10~11월 감 출하시기에 맞춰 자국산 감이 대량 공급됨
 - 현지 판매되는 신선감의 원산지는 자국(일본)산이 압도적인 비중 차지하며, 산지 또는 품종을 강조

3) 일본 미나미 신슈 JA전농(www.ja-mis.iijan.or.jp)

〈표 I-3〉 일본 감 유통제품 현황 (1)신선감

제품사진			
원산지	일본	일본	일본
가격	2,470엔(한화 약 22,330원)	4,980엔(한화 약 45,022원)	10,000엔(한화 약 90,406원)
중량(수량)	5kg	10kg	10kg
포장 형태	종이상자	종이상자	종이 상자
홍보키워드	‘뽕은감’, ‘씨없음’ 등	‘명품’, ‘크기’ 등	‘탈삽’, ‘단맛’, ‘씨없음’ 등

*출처: www.rakuten.co.jp, https://shopping.yahoo.co.jp(검색일: 2023.06.13.~2023.06.16.)

○ 자국산 건조감 유통 비중이 높으며 한국산 외 수입산 제품은 업무용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

- 일본산 건조감은 수확 후 건조 과정을 거쳐 11월경부터 출하되기 시작
- 소매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이 자국(일본)산이며 ‘나가노’, ‘와카야마’ 등 산지를 강조하거나 ‘이치다’ 등 품종을 강조함
- 수입산의 경우 업무용 대용량 중국산 비중이 높으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만족하거나 우려 대비 높은 품질에 긍정적으로 평가

〈표 I-4〉 일본 감 유통제품 현황 (2)건조감

제품사진			
원산지	일본	일본	일본
가격	1,389엔(한화 약 12,557원)	3,480엔(한화 약 31,461원)	4,480엔(한화 약 40,502원)
중량(수량)	75g * 2개	800g	1kg
포장 형태	레토르트 파우치	박스	비닐
홍보키워드	‘국산’, ‘무설탕’ 등	‘나가노현’, ‘선물용’ 등	‘냉동’, ‘대용량’ 등
제품사진			
원산지	중국	중국	중국
가격	4,320엔(한화 약 39,055원)	6,900엔(한화 약 62,380원)	2,800엔(한화 약 25,315원)
중량(수량)	140g * 10봉	5kg	1kg
포장 형태	레토르트 파우치	종이박스	종이박스
홍보키워드	‘건조’, ‘식이섭유’	‘대용량’, ‘저렴한 가격’ 등	‘저렴한 가격’ 등

*출처: www.rakuten.co.jp, https://shopping.yahoo.co.jp(검색일: 2023.06.13.~2023.06.16.)

- 한국산 감말랭이, 냉동 반건시 등 제품이 대형마트와 편의점, 한인마트 등을 통해 유통
 - 한국산 제품은 청도에서 생산된 감으로 제조된 제품이 대부분이며 감말랭이, 반건시, 감 칩 등의 형태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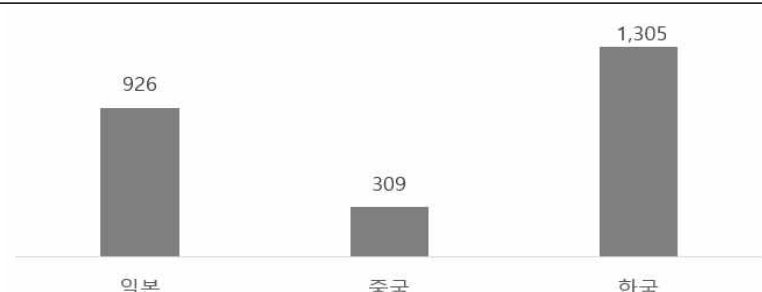
<표 I -5> 일본 감 유통제품 현황 (3)한국산 제품

제품사진			
가격	3,800엔(한화 약 34,357원)	6,210엔(한화 약 56,146원)	5,220엔(한화 약 47,195원)
중량(수량)	63g * 10봉	400g * 2개	400g
포장 형태	레토르트 파우치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용기
홍보키워드	‘한국’, ‘말린감’, ‘냉장’, ‘스낵’	‘한국’, ‘곶감’, ‘감말랭이’, ‘상주’	‘한국’, ‘반시’, ‘감말랭이’, ‘청도’
제품사진			
가격	6,210엔(한화 약 56,146원)	3,816엔(한화 약 34,501원)	7,599엔(한화 약 68,704원)
중량(수량)	1kg	60g * 5봉	50g * 25봉
포장 형태	플라스틱 용기	레토르트 파우치	레토르트 파우치
홍보키워드	‘한국’, ‘반시’, ‘곶감’, ‘청도’	‘한국’, ‘감말랭이’, ‘청도’	‘한국’, ‘감말랭이’, ‘황토방’

*출처: www.rakuten.co.jp, www.qoo10.jp(검색일: 2023.06.13.~2023.06.16.)

- 주요 경쟁제품 중 한국산이 100g 당 1,305엔(한화 약 1만 1,797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
 - 이어서 일본산(926엔), 중국산(309엔) 순으로 판매 중

<표 I -6> 건조감 경쟁제품 가격 비교

			(단위: 엔/100g)		
			원산지	가격(엔)	중량
	일본	926	일본	1,389	75g*2개
	중국	309	중국	4,320	140g*10봉
	한국	1,305	한국	5,220	400g

*주: 원산지별 대표 제품 선정

□ 대표적인 가을 작물로서 일반 섭취 또는 제수, 선물용 등 다양한 용도로 소비

-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10.8개를 소비하였으며 감 구매에 865엔(한화 약 7,821원)을 지출
 - 감 소비량이 높은 지역은 기후현(가구당 연평균 22.3개), 오이타현(18.1개), 홋카이도(17.2개) 순
 - 오랜기간 동안 재배 및 생산되어 친숙하며 대표적인 가을 작물로 인식
- 뚝은감을 이용한 건조감 또는 꽃감 생산과 소비에 익숙
 - 수분 함량에 따라 ‘고로감(枯露柿)(수분 함량 25~30%)’, ‘안포감(あんぽ柿)(수분 함량 50%)’ 등 유형이 세분화되며, ‘나가노’ 등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고급 제품으로 인식함⁴⁾
 - 나가노현의 이치다 감(市田柿)은 쫄깃한 식감과 적당한 단맛으로 인기
 - 설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 제품의 수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은 절단된 형태로 간식용으로 소비

<그림 1-1> 일본 감 소비방식 예시



*출처: <https://my-best.com>

3. 수출입현황

- 신선감 대비 건조감이 상대적으로 큰 수입규모를 보이며, 중국산과 경쟁 구도를 형성
 - 일본 신선감 수입시장은 뉴질랜드산(75.0%)과 한국산(25.0%)이 양분

4) 카나자와 중앙도매시장(www.maruka-ishikawa.co.jp)

- 2022년 전년 대비 82.6% 감소한 1만 6,000달러(한화 약 2,051만 원) 수입하였으며 이 중 뉴질랜드산 1만 2,000달러(한화 약 1,538만 원), 한국산 4,000달러(한화 약 513만 원) 수입
- 일본 감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고 엔저 현상 지속으로 인해 수입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

<표 1-7> 일본 신선감 수입금액 추이(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84	116	177	92	16	100.0	-82.6	-33.9
1 뉴질랜드	47	62	80	43	12	75.0	-72.1	-28.9
2 대한민국	0	0	15	-	4	25.0	-	-
3 미국	37	54	82	49	-	-	-	-

*주: HS코드 0810.70 (신선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6.13.)

○ 한국산 신선감 수입단가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

- 2022년 신선감 평균 수입단가는 kg 당 8달러(한화 약 1만 256원)로, 뉴질랜드산 12.00달러(한화 약 1만 5,384원), 한국산 4달러(한화 약 5,128원) 수준으로 집계

<표 1-8> 일본 신선감 수입단가 추이(2018~2022)

(단위: 달러/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6.00	4.83	4.54	6.57	8.00	21.7	7.5
1 뉴질랜드	5.88	5.64	5.71	8.60	12.00	39.5	19.5
2 대한민국	-	-	2.50	-	4.00	-	-
3 미국	5.29	4.15	4.10	5.44	-	-100.0	-100.0

*주: HS코드 0810.70 (신선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6.13.)

○ 신선감 대비 상대적으로 큰 건조감 수입시장 또한 중국산(56.3%)과 한국산(41.0%)이 양분하는 형태

- 2022년 전년 대비 26.7% 감소한 306만 1,000달러(한화 약 39억 2,420만 원) 수입하였으며 중국산과 한국산 수입금액이 전체 97.3% 비중을 차지
- 중국산은 18.8% 감소한 172만 3,000달러(한화 약 22억 888만 원), 한국산은 125만 6,000달러(한화 약 16억 1,019만 원)를 각각 수입하였고, 특히 한국산은 2020년 수입규모가 급증하였다가 점차 감소
- 이 밖에도 2022년에는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젠, 스페인 등에서 수입

<표 I -9> 일본 건조감 수입금액 추이(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3,096	3,715	5,379	4,178	3,061	100.0	-26.7	-0.3
1 중국	2,634	2,693	2,825	2,123	1,723	56.3	-18.8	-10.1
2 대한민국	261	992	2,488	2,007	1,256	41.0	-37.4	48.1
3 튀르키예	0	0			57	1.9	-	-
4 아제르바이젠	0	0		2	19	0.6	850.0	-
5 스페인	4	7	14		6	0.2	-	10.7
6 미국	9	6	8	7		0.0	-100.0	-100.0
7 캄보디아	188	0	39			0.0	-	-100.0
8 이란	0	18	6	38		0.0	-100.0	-

*주: HS코드 0813.40-022 (건조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6.13.)

○ 중국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수입단가를 상회

- 2022년 건조감 수입단가는 kg 당 6.02달러(한화 약 7,717원)로, 중국산은 이보다 낮은 4.23달러(한화 약 5,423원)로 가격경쟁력 확보
- 한국산은 평균단가의 두 배 가량인 13달러(한화 약 1만 6,666원)로 나타났으며 2020년 이후 점차 감소

<표 I -10> 일본 건조감 수입단가 추이(2018~2022)

(단위: 달러/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4.08	4.6	5.75	5.99	6.02	0.5	10.2
1 스페인	20	18	18	-	30	-	10.7
2 튀르키예	-	-	-	-	14	-	-
3 대한민국	14	15	16	15	13	-13.3	-1.8
4 아제르바이젠	-	-	-	12	13	8.3	-
5 중국	3.59	3.64	3.66	3.8	4.23	11.3	4.2
6 이란	-	8.99	12	8.42	-	-100.0	-
7 캄보디아	25	-	28	-	-	-	-100.0
8 미국	19	21	21	18	-	-100.0	-100.0

*주: HS코드 0813.40-022 (건조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6.13.)

○ 한국산 감 수입 시 RCEP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신선감 4.4%, 건조감 6.5%의 관세율 적용

- 중국산에도 한국산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미국산, 스페인산, 캄보디아산은 무관세(0%)로 수입하여 격차 발생

〈표 1-11〉 일본 감 수입 관세율

구분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	미일 무역협정	EU	아세안
신선감	10%	6%	4.4%	0%	0%	0%
건조감	-	9%	6.5%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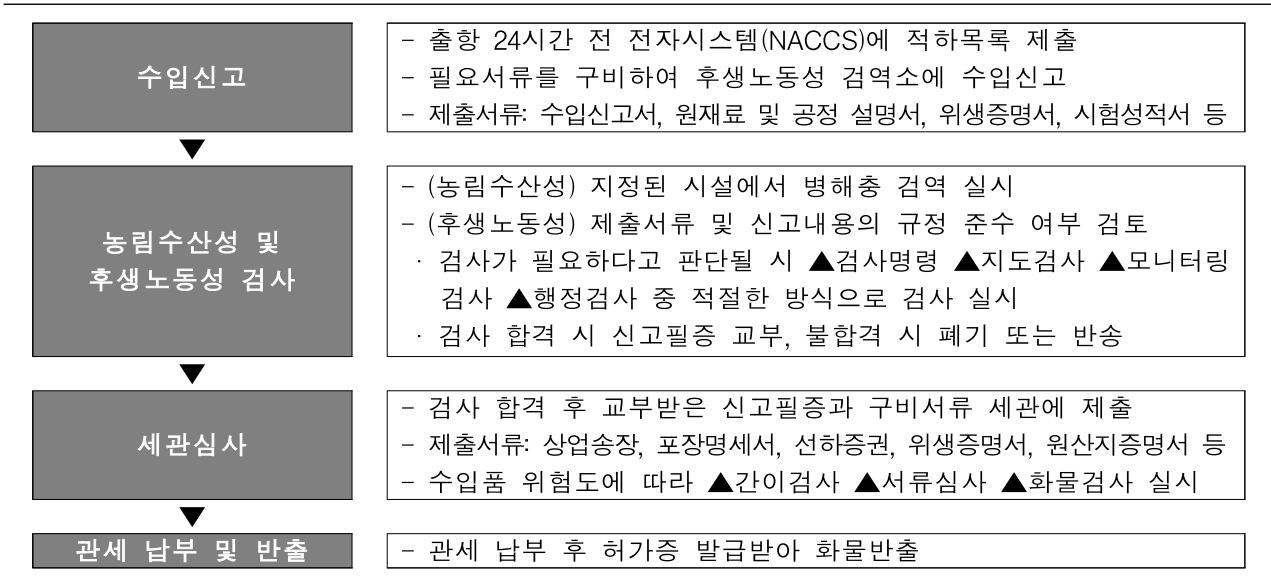
*주: HS코드 0810.70 (신선감), 0813.40-022 (건조감) 기준

*출처: 일본 세관(www.customs.go.jp)

4. 통관 및 수입제도

□ 감 수입 시 ‘수입신고 → 농림수산물성 및 후생노동성 검사 → 세관 심사 → 관세 납부 및 반출’ 순의 수입통관 실시

〈그림 1-2〉 일본 감 수입통관 절차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www.mhlw.go.jp)

- 일본으로 귤감 등 수출 시 식물위생증(PC) 첨부 필수

□ 신선감 및 감 가공품 라벨 표시 방법에 유의하여 주요 정보 표시

- 신선감에는 제품 명칭 및 원산지를 필수적으로 표시하며, 포장한 경우에는 내용량, 사업자 상호 및 주소, 보관방법 등을 추가로 표시
- 감 가공품 라벨에는 명칭 및 원산지, 성분 목록 및 첨가물, 영양성분, 내용량, 소비기한, 사업자 상호 및 주소, 보관방법 등을 표시

<그림 I-3> 일본 감 라벨링 예시



*출처: <https://store.mahorobashop.jp>, <https://yellmall.jp>

□ 농약 및 미생물 기준 등 위생안전 관리를 통한 안전한 감 제품 수출 필수

- 對일 수출용 감의 잔류농약 기준치 준수하여 안전성 관리

<표 I-12> 일본 밤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디티아논	1ppm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	0.3ppm
디페노코나졸	0.8ppm	이프플루페노퀸	0.9ppm
만데스트로빈	3ppm	크레속심메틸	5ppm
만코제브	0.6dppm	테부코나졸	1ppm
메펜트리플루코나졸	2ppm	테트라코나졸	0.5ppm
베노밀	3cppm	트리플록시스트로빈	1ppm
시메코나졸	0.2ppm	티오파네이트메틸	3cppm
아이소페타미드	1ppm	펜뷰코나졸	0.7ppm
아족시스트로빈	1ppm	펜티오피라드	3ppm

*출처: 일본 수출용 밤 농약안전사용 지침(www.nongsaro.go.kr)

- 일본으로 수입된 한국산 냉동곶감 및 건조감이 미생물 기준 위반 사유로 통관이 거부된 바 있어 유의 필요

<표 I-13> 수입산 감 부적합 사례

연도	원산지	제품 유형	부적합 사유
2018	한국	냉동곶감	미생물 기준 위반
2015	한국	건조감	미생물 기준 위반

*출처: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

II. 미국 뽕은감 시장현황

1. 생산현황

□ 일부 지역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생산 중

- 2019년 3,145ac 면적에서 15,222톤 생산한 것으로 추정
 - 주요 품종은 크게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재배되고 ‘아시아 감’ 또는 ‘일본 감’으로 불리는 ‘디오스피로스 카키(Diospyros kaki)’와 코네티컷 남부와 롱아일랜드 등 북동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이른바 ‘미국감 또는 ’일반감‘으로 불리는 ‘디오스피로스 버지니아(Diospyros virginiana)’로 구분⁵⁾
 - 뽕은감 품종으로 ‘하치야’ 품종을 주로 생산하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부유’, ‘지로’ 등 단감 품종을 주로 재배
- 미국의 감 생산지원제도는 타 작물 대비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으로 품종 개량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그침
 - 미 농무부(USDA) 산하 국립식량농업연구소(NIFA)는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 및 교육(SARE) 프로그램에 의해 2023년 감 품종 개량에 약 15,000달러(한화 약 1,92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는 감 묘목 접목방식 연구 및 개량감 활용 촉진방안 수립에 8,335달러(한화 약 1,068만 원)를 지급⁶⁾
 - 미 농무부(USDA) 산하 캘리포니아 서부지역연구센터는 캘리포니아산 상품성 향상을 위해 품종 연구를 비롯하여 관능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

2. 유통 및 소비현황

□ 자국산 및 수입산 물량이 도매시장으로 꾸준히 공급되나 소매 유통채널로 제한적으로 유통되며 인지도 또한 낮은 편

- 도매시장을 통해 연중 꾸준히 공급되는 반면, 소매 유통 채널에서는 수확 이후 일시적으로 유통
 - 도매시장에서는 자국산과 스페인산 외에도 출하시기가 정반대인 뉴질랜드산이

5) 미국 농업마케팅자원센터(www.agmrc.org)

6) 미 농무부 임업서비스(www.fs.usda.gov)

- 공급되며 연중 꾸준히 물량이 확보되며, 상당수 업무용으로 유통될 것으로 추정
- 소매 유통채널에서는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 제한적으로 유통되며 ‘계절 과일(Seasonal fruits)’로 인식

<표 II-1> 미국 신선감 월별 도·소매가격(2022)

(단위: 달러/카톤, 달러/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매 (달러/카톤)	25.47	18.63	16.88	25.25	27.64	22.60	22.91	22.59	58.98	33.78	29.74	25.33
소매 (달러/개)	0.58	N/A	N/A	N/A	N/A	N/A	N/A	N/A	N/A	1.10	0.83	0.84

*주: 소매가격은 주간 판매가격의 평균이며, 유통채널에 따라 단위는 ‘달러/개’ 또는 ‘달러/파운드’ 로 상이

*출처: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서비스(<https://cat.ams.usda.gov>)(검색일: 2023.06.14.)

□ 자국산과 한국, 일본 등 동양권 국가산 제품 간 차이 뚜렷

- 감 출하시기 동안 농산물 직판장 또는 식료품점을 통해 자국(미국)산 신선감 유통
 - 감 인지도가 낮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맛, 식감, 섭취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특히 뚫은감은 ‘후숙한 뒤 부드럽게 익었을 때 섭취’와 같은 문구를 표시하여 적절한 섭취방법을 안내
 - 풍미 및 품질 중심으로 홍보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유통되는 감 품종은 단감 품종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
 - 신선감 구매자는 후숙한 뒤 부드러운 형태로 섭취하며 잼, 타르트 등 요리의 재료로 조리 후 섭취

<표 II-2> 미국 감 유통제품 현황 (1)신선감

제품사진			
원산지	미국	미국	미국(캘리포니아)
가격	64.99달러(한화 약 83,317원)	62.10달러(한화 약 79,612원)	71.00달러(한화 약 91,022원)
중량(수량)	7-10개	5파운드(2,268g)	5파운드(2,268g)
포장 형태	종이상자	종이상자	종이상자
홍보키워드	‘하치야’, ‘익힌 후 섭취’	‘유기농’, ‘부유(Fuyu)’	‘부유’, ‘캘리포니아’ 등
판매처	Groworganic	아마존(Amazon)	아마존(Amazon)

*출처: www.groworganic.com, www.amazon.com(검색일: 2023.06.13.~2023.06.16.)

- 자국산 또는 일부 수입산은 완전 건조 형태, 중국산 및 일본산은 약간 무른 형태의 꺾임류 제품 유통 중
 - 자국산과 튀르키예산 등 일부 수입산 건조감 제품은 슬라이스 또는 통째로 완전 건조한 감칩 형태의 제품이 다수 유통
 - ‘건강한 간식’을 주요 홍보키워드로 내세우며 설탕·방부제 등 무첨가 제품임을 중점적으로 홍보
 - 일본산과 중국산의 경우 한국 꺾임과 유사한 약간 무른 제품이 유통되며 이 중 일본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 제품이 눈에 띈
 - 이 밖에도 USDA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상당수 유통됨을 확인

〈표 II-3〉 미국 감 유통제품 현황 (2)건조감

제품사진			
원산지	미국	미국	튀르키예
가격	36.99달러(한화 약 47,421원)	18.99달러(한화 약 24,345원)	15.00달러(한화 약 19,230원)
중량(수량)	12oz*2봉	1파운드(1봉)	50g*4봉
포장 형태	비닐	비닐	비닐
홍보키워드	‘건강’, ‘자연’ 등	‘유기농’, ‘졸깃함’, ‘캘리포니아’, ‘하치야’ 등	‘무설탕’, ‘비건’, ‘자연’ 등
판매처	월마트(Walmart)	Bella Viva Orchards	월마트(Walmart)
제품사진			
원산지	미국	일본	중국
가격	13.99달러(한화 약 17,935원)	63.00달러(한화 약 80,766원)	20.59달러(한화 약 26,396원)
중량(수량)	8온스	2.1파운드	1파운드
포장 형태	비닐	양철 용기	비닐
홍보키워드	‘유기농’, ‘부유’, ‘방부제-프리’ 등	‘유기농’, ‘글루텐프리’, ‘자연’, ‘방부제-프리’ 등	‘천연’, ‘방부제-프리’, ‘건강한 간식’ 등
판매처	FrogHollow Farm	아마존(Amazon)	오넛츠(Ohnuts)

*출처: www.walmart.com, www.bellaviva.com, www.froghollow.com, www.amazon.com, www.ohnuts.com(검색일: 2023.06.13.-2023.06.16.)

- 감말랭이, 꺾임, 냉동 홍시 등 한국산 제품이 한인마트 및 한국식품 수입업체를 통해 유통 중
 - 주요 제품 형태는 ▲감말랭이 ▲꺾임 ▲홍시 등으로, 감말랭이 제품은 60g, 50g, 150g 소포장 판매되며 꺾임 및 냉동 홍시는 제품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되어 판매

- 주 구매자층은 현지 거주 한인 또는 한국식품에 익숙한 아시안으로 제한적

<표 II-4> 미국 감 유통제품 현황 (3)한국산 제품

제품사진			
가격	18.50달러(한화 약 23,717원)	5.00달러(한화 약 6,410원)	12.50달러(한화 약 16,025원)
중량(수량)	60g x 5개	50g	150g
포장 형태	레토르트 파우치	레토르트 파우치	레토르트 파우치
홍보키워드	'감', '감말랭이', '한국', '청도'	'감', '감말랭이', '한국', '청도'	'말린감', '감말랭이', '청도', '한국'
판매처	Omona	Omona	Kim' C Market
제품사진			
가격	8.00달러(한화 약 10,256원)	14.99달러(한화 약 19,217원)	21.95달러(한화 약 28,139원)
중량(수량)	60g * 4입	2파운드	300g
포장 형태	플라스틱 포장	종이상자	플라스틱 난좌용기
홍보키워드	'홍시', '아이스', '한국', '청도'	'꽃감', '한국', '반건조' 등	'꽃감', '한국', '무첨가' 등
판매처	Kim' C Market	H&Y Martket	Wooltari

*출처: www.omonausa.com, www.kimcmarket.com, www.hanyangmart.com, www.wooltariusa.com(검색일: 2023.06.13.~2023.06.16.)

- 한국산은 경쟁제품 중 100g 당 가격이 가장 높은 10.0달러 (한화 약 1만 2,820원)에 판매 중
- 이어서 튀르키예산(7.5달러), 일본산(6.6달러), 중국산(4.5%) 순

<표 II-5> 건조감 경쟁제품 가격 비교

(단위: 달러/100g)

원산지	가격(달러)	중량
미국	18.99	1파운드
튀르키예	15.00	50g*4봉
일본	63.00	2.1파운드
중국	20.59	1파운드
한국	5.00	50g

*주1: 원산지별 대표 제품 선정

*주2: 1파운드 = 약 454g

□ **뽕은맛 제거를 위해 후숙 처리를 거치며, 한인 및 아시안 소비자 위주로 소비하는 경향**

- 뽕은맛에 대한 거부감과 낫선 후숙 처리로 인해 바나나, 사과, 포도 등 인기 과일에 비해 인지도와 소비규모가 낮은 편
 - 신선감 상태 그대로 샐러드 등의 형태로 섭취하는 단감과 달리, 뽕은감은 완전히 후숙하여 뽕은맛을 제거한 채로 과육을 떼먹거나 빵, 쿠키 위에 올려 함께 섭취하는 형태
 - 평소 접하는 감은 마당에서 재배되는 야생 작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후숙한 뽕은감의 물컹거리는 식감에 익숙하지 않음
 - 최근에는 감말랭이, 꺾임감 등 가공품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익숙한 한인 및 일본계, 중국계 등 아시안 소비자의 소비 경향이 아직까지 뚜렷하며, 이로 인해 한인마트 또는 아시안 마켓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유통 및 판매

3. 수출입현황

□ **한국산 건조감이 수입되지만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 신선감 수입국은 스페인산(48.4%), 이스라엘산(28.1%), 칠레산(21.4%) 순
 - 2022년 신선감 수입규모는 347만 달러(한화 약 44억 4,854만 원)로 전년 대비 35.5% 감소
 - 한국산은 2020년 이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6〉 미국 신선감 수입금액 추이(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3,878	5,017	6,213	5,383	3,470	100.0	-35.5	-2.7
1 스페인	1,061	2,359	3,072	1,227	1,679	48.4	36.8	12.2
2 이스라엘	1,082	785	2,149	959	975	28.1	1.7	-2.6
3 칠레	1,590	1,654	874	3,131	741	21.4	-76.3	-17.4
4 일본	48	27	36	65	75	2.2	15.4	11.8
5 대한민국	40	54	17	-	-	0.0	-	-100.0
6 뉴질랜드	57	137	65	-	-	0.0	-	-100.0

*주: HS코드 0810.70 (신선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6.13.)

- 신선감 수입단가는 kg 당 2.19달러(한화 약 2,808원)에 형성

- 2022년 일본산(6.82달러), 칠레산(4.21달러), 스페인산(2.07달러), 이스라엘(1.66달러) 순으로 높은 단가를 형성하였으며, 한국산은 2020년 기준 8.50달러(한화 약 1만 897원)로 집계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편

〈표 II-7〉 미국 신선감 수입단가 추이(2018~2022)

(단위: 달러/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1.43	1.75	2.41	2.72	2.19	-19.5	11.3
1 일본	5.33	13.50	6.00	1.91	6.82	256.6	6.3
2 칠레	1.92	3.82	3.88	3.71	4.21	13.5	21.7
3 스페인	0.99	1.12	2.08	2.11	2.07	-1.7	20.4
4 이스라엘	1.37	2.53	2.50	1.84	1.66	-10.1	4.9
5 대한민국	8.00	6.75	8.50	-	-	-	-100.0
6 뉴질랜드	11.40	9.13	8.13	-	-	-	-100.0

*주: HS코드 0810.70 (신선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6.13.)

- 건조감을 포함한 건조 과실류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4,372만 9,000달러(한화 약 560억 6,057만 원)로 집계
 - 중국산(43.0%), 태국산(11.2%), 베트남산(7.0%) 순의 비중을 보이며, 한국산은 전년 대비 23.0% 증가한 96만 9,000달러(한화 약 12억 4,225만 원) 수입하며 전체 2.2% 비중 차지

〈표 II-8〉 미국 건조감 수입금액 추이(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23,757	21,191	20,242	40,414	43,729	100.0	8.2	16.5
1 중국	13,936	11,101	5,028	13,714	18,804	43.0	37.1	7.8
2 태국	2,641	2,708	2,624	2,880	4,917	11.2	70.7	16.8
3 베트남	516	701	384	3,604	3,058	7.0	-15.1	56.0
4 브라질	208	259	1,147	2,019	2,247	5.1	11.3	81.3
5 남아공	1,329	726	1,425	5,383	2,068	4.7	-61.6	11.7
6 튀르키예	482	264	1,313	1,308	1,825	4.2	39.5	39.5
7 칠레	178	204	116	1,262	1,624	3.7	28.7	73.8
8 홍콩	115	127	68	564	1,178	2.7	108.9	78.9
9 대한민국	1,042	651	671	788	969	2.2	23.0	-1.8
10 멕시코	18	0	1,245	1,909	906	2.1	-52.5	166.4

*주: HS코드 0813.40-9000 (기타 건조 과실류) 기준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6.13.)

- 한국산 수입단가는 평균단가보다 약간 높은 편
 - 건조 과실류 평균 수입단가는 kg 당 11달러(한화 약 1만 4,102 원) 수준으로 한국산은 16달러(한화 약 2만 512원)를 기록하였으며, 남아공산(6.15달러), 홍콩(중국)산(6.52달러) 등 다른 수입산 대비 높은 수준

〈표 II-9〉 미국 건조감 수입단가 추이(2018~2022)

(단위: 달러/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8.46	8.81	8.01	9.89	11.00	11.2	6.8
1 남아공	6.67	5.84	5.11	6.40	6.15	-3.9	-2.0
2 홍콩	9.78	8.75	5.19	8.17	7.79	-4.7	-5.5
3 태국	7.22	9.37	9.36	6.52	8.69	33.3	4.7
4 베트남	12.00	12.00	11.00	21.00	9.12	-56.6	-6.6
5 칠레	5.56	9.14	9.47	8.24	11.00	33.5	18.6
6 튀르키예	9.18	12.00	16.00	15.00	12.00	-20.0	6.9
7 멕시코	11.00	-	17.00	17.00	13.00	-23.5	4.3
8 중국	9.94	10.00	6.34	12.00	14.00	16.7	8.9
9 대한민국	15.00	14.00	12.00	18.00	16.00	-11.1	1.6
10 브라질	7.47	9.64	27.00	28.00	27.00	-3.6	37.9

*주1: HS코드 0813.40-9000 (기타 건조 과실류) 기준

*주2: 수입 상위 10개국산의 수입단가 비교(전체 수입국의 수입단가 순위는 상이할 수 있음)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6.13.)

○ 한-미 FTA를 활용하여 무관세(0%) 수출 가능

- 한국산을 비롯해 칠레산, 이스라엘산 모두 수입 시 0% 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 수입산의 경우 신선감 2.2%, 건조감 2.5% 세율 적용

〈표 II-10〉 미국 감 수입 관세율

구분	기본세율	한-미 FTA 협정세율	미-칠레 FTA 협정세율	미-이스라엘 FTA 협정세율
신선감	2.2%	0%	0%	0%
건조감	2.5%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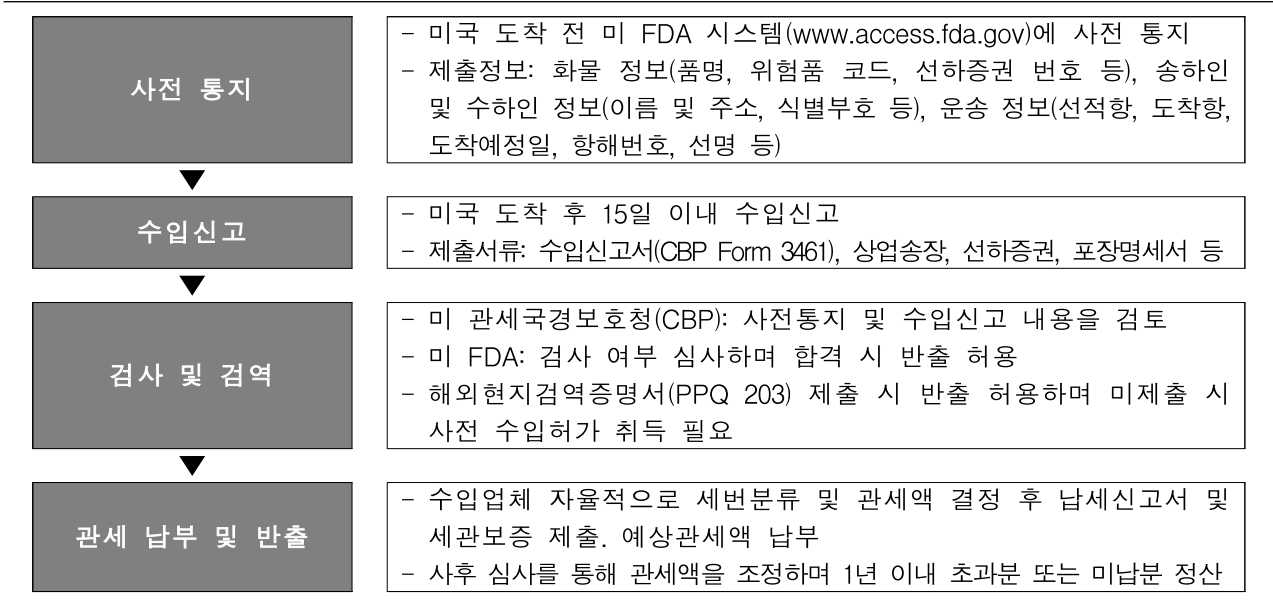
*주: HS코드 0810.70 (신선감), 0813.40-9000 (기타 건조 과실류) 기준

*출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https://hts.usitc.gov>)

4. 통관 및 수입제도

- ‘사전통지 → 수입신고 → 검사 및 검역 → 관세 납부 및 반출’ 절차에 따라 감 수입

<그림 II-1> 미국 감 수입통관 절차



*출처: 미국 식품의약국(www.fda.gov), 관세국경보호청(www.cbp.gov)

- 식품 생산·가공·포장·취급하는 시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출 전 등록 필수
 - 온라인⁷⁾을 통해 주요 정보(시설명 및 주소, 고유식별번호(UFI),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미국 상주 에이전트 이름 및 연락처, 식품 유형 등)를 제출해야 하며 2년마다 재등록 필요
 - 필요시 미 FDA는 외국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
- 對미 수출 시 수출검역요건 준수 필요⁸⁾
 - 대미 감 수출단지는 재배지검역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출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여 특정 문구⁹⁾가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필요
 - 미국이 관심대상 병해충으로 지정한 복숭아명나방, 감꼭지나방, 온실가구 깍지벌레, 감나무애응애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관리 필수
- 미국으로 꺾감 등 수출 시 완전히 건조된 제품만 수출 가능

□ 관련 규정에 따라 감에 요구되는 라벨링 요구사항 충족 필요

- 라벨에는 제품명, 원산지, 영양성분, 제조·포장·유통업체 정보, 중량 등을 표시

7) www.fda.gov/furls

8)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시행 2019. 10. 14.]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70호, 2019. 10. 14., 일부개정]

9) The fruits in this shipment are free of *Conogethes punctiferalis*, *Planococcus kraunhiae*, *Stathmopoda masinissa* and *Tenuipalpus zhizhilashiviliae*

〈그림 II-2〉 미국 감 라벨링 예시



*출처: www.walmart.com

□ 살충제 기준을 위반한 한국산 감이 수출된 바 있어 수출 전 농약 사용에 관한 기준을 숙지 필요

- 미국으로 감을 수출하기 전 감에 사용이 허가된 농약 및 잔류 허용기준을 파악하여 농약 사용에 유의

〈표 II-11〉 미국 감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디페노코나졸	0.7ppm	스피로테트라멧	2.5ppm
아족시스트로빈	2ppm	디페노코나졸 · 폴리옥신디(사1) ¹⁾	0.7ppm
펜티오피라드	3ppm	디페노코나졸 · 피라클로스트로빈(사1) ¹⁾	0.7ppm
피라클로스트로빈	3ppm	디페노코나졸 · 피라클로스트로빈(다3) ²⁾	3ppm
피라클로스트로빈	3ppm	아족시스트로빈 · 디페노코나졸(사1) ¹⁾	0.7ppm
디노테퓨란	2ppm	아족시스트로빈 · 디페노코나졸(다3) ²⁾	2ppm
이미다클로프리트	3ppm	디페노코나졸 · 피라클로스트로빈(사1) ¹⁾	0.7ppm
클로티아니딘	0.5ppm	디페노코나졸 · 피라클로스트로빈(다3) ²⁾	3ppm

1) 작용기작을 나타내는 기호

*출처: 미국 수출용 밤 농약안전사용 지침(www.nongsaro.go.kr)

○ 살충제 사용기준 위반한 한국산 감 다수 적발되어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 필요

- 승인되지 않았거나 허용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잔류물이 검출될 경우 불순한 식품으로 간주하여 미국으로의 수입통관을 거부

〈표 II-12〉 수입산 감 부적합 사례

연도	원산지	제품 유형	부적합 사유
2022	한국	신선감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2022	한국	신선감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2020	한국	건조감 또는 감 페이스트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2020	한국	건조감 또는 감 페이스트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2019	한국	건조감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2019	한국	건조감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2019	한국	건조감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출처: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

Ⅲ. 호주 단감 시장현황

1. 생산현황

□ 감 생산규모는 크지 않으나 정부 및 협회의 자금 지원으로 감 산업 발전 가능성 높음

- 호주 감 생산규모는 전체 과실류 생산의 0.3% 비중 차지
 - 호주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약 1,730만 달러(한화 약 221억 7,860만 원)에 달하는 3,462톤의 감을 생산하였으며, 전년 대비 생산액은 56%, 생산량은 25% 증가¹⁰⁾
 - 퀸즐랜드(35%), 빅토리아(25%), 뉴사우스웨일스(20%) 순의 생산비중을 차지하며, 3~6월에 주로 생산 및 출하
 - 생산량의 90% 가량이 '부유', '지로'와 같은 단감 품종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스페인 로호(Rojo) 품종을 재배
- 호주 원예혁신협회(Hort Innovation)를 통해 RnD 투자 및 마케팅 지원
 - 2020/21 기간 동안 감 산업 관련 RnD 부문에 자금 투자가 이뤄졌으며, 대표적으로 감나무마름병 진단 및 관리 연구, 신품종 개량 연구, 단감 해충 및 질병관리 작업 등에 투자
 - 또한 최근 감 소비 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가을철 간식'으로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홍보 및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소셜네트워크 상 125만 회 이상의 노출 및 17,000개 이상의 소비자 참여 콘텐츠를 생성
 - 호주의 감 생산 지원제도는 정부가 생산자를 통해 kg 당 3.75센트(한화 약 33원)의 RnD 부담금과 kg 당 2.5센트(한화 약 22원)의 마케팅 부담금을 징수한 후 이를 호주 원예혁신협회에 위탁하여 RnD 투자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형태¹¹⁾
 - 이 외에도 호주 원예혁신협회는 감 산업 발전 및 수출시장 개발을 위해 「감 전략적 투자 계획 2022-2026」 및 「감 산업 수출시장 개발 전략 2023」 등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

10) 호주 원예혁신협회(www.horticulture.com.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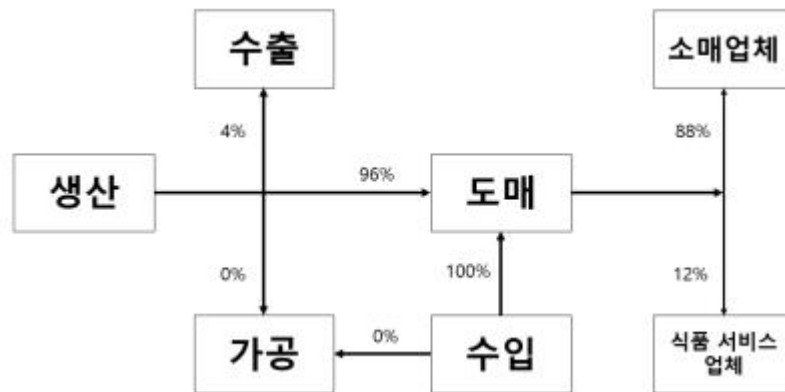
11) 호주 농수산임업부(www.agriculture.gov.au)

2. 유통 및 소비현황

□ 대형 또는 로컬 유통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경향 뚜렷

- 신선감은 소매 유통채널로 최종 공급되는 비중이 가장 큼
 - 자국 생산(수출용 및 가공용 제외) 또는 수입된 감은 소매 유통채널(88%) 또는 식품 서비스업체(12%)로 유통됨

〈그림 III-1〉 호주 감 유통경로(2022)






*출처: www.horticulture.com.au

- 대형 오프라인 유통채널 및 로컬 유통채널을 통해 감 유통
 - 울월스(Woolworths), 콜스(coles) 등 대표적인 유통채널과 감 산지에 위치한 로컬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며, 특히 대형 유통채널에서는 감을 이국적인 과일로 분류하고 출하시기에 제한적으로 유통

□ 주요 경쟁국인 일본산 일부 제품은 프리미엄으로 인식, 한국산은 한인마트 중심으로 꾀감, 반건시 등 유통

- 유통 및 판매되는 신선감 품종은 ‘부유’ 등 단감 위주
 - 식료품점과 일부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음
 - 호주 소비자는 호주 감 농가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선감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도 함

〈표 III-1〉 호주 감 유통제품 현황 (1)신선감

제품사진			
원산지	호주	호주	호주
가격	2.20호주달러(한화 약 1,937원)	7.50호주달러(한화 약 6,603원)	2.99호주달러(한화 약 2,632원)
중량(수량)	1개	1kg 당	1개
포장 형태	정보없음	난좌용기로 포장 후 종이상자	정보없음
홍보키워드	‘신선감’	‘부유(FUYU)’, ‘단감’ 등	‘신선삼’, ‘부유(FUYU)’
판매처	Woolworths	Aviani Persimmon Farm	Harris Farm Market

*출처: www.woolworths.com.au, www.avianipersimmonfarm.com.au, www.harrisfarm.com.au(검색일: 2023.06.13.~2023.06.16.)

- 건조감 제품은 호주산 및 일본산 비중이 큰 편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또는 일부 식료품점, 아시안 마켓에서 판매
 - 호주산은 슬라이스해 건조된 제품이 주로 판매되며, 비닐 포장된 제품이 다수
 - 또한, ‘호주산 감’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원산지에 대한 신뢰 및 안전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
 - 일본산 제품은 선물용 포장 제품이 판매되며, ‘일본식 프리미엄 간식’, ‘호시가키(일본식 곱감)’ 등의 설명을 통해 프리미엄 제품임을 강조
 - 호주 소비자는 일본식 곱감 ‘호시가키’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조과정을 거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

〈표 III-2〉 호주 감 유통제품 현황 (2)건조감

제품사진			
원산지	호주	호주	일본
가격	8.50호주달러(한화 약 7,484원)	5.99호주달러(한화 약 5,274원)	90호주달러(한화 약 7만 9,243원)
중량(수량)	150g	40g	700g
포장 형태	비닐	비닐	종이상자
홍보키워드	‘호주산’, ‘달콤함’	‘호주산’, ‘방부제-프리’ 등	‘일본식’, ‘프리미엄’, ‘건강’ 등
면판매처	RoyFarms	Tropical Harvest	Japanese Taste

*출처: www.royfarms.com.au, www.tropicalharvestqld.com.au, int.japanesetaste.com(검색일: 2023.06.13.~2023.06.16.)

- 한국산 제품은 주로 한인마트 및 온라인 한국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유통
 - 한국산은 곱감, 반건시 등이 시드니, 멜버른 등 대도시에 위치한 한인마트에서 판매되며, ‘한국산’, ‘곱감’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 강조

〈표 III-3〉 호주 감 유통제품 현황 (3)한국산 제품

제품사진			
가격	12.99달러(한화 약 11,437원)	12.98달러(한화 약 11,428원)	24.98달러(한화 약 21,994원)
중량(수량)	450g~500g	300g(50g*6개입)	7~8개 (약 600g)
포장 형태	플라스틱 난좌용기	플라스틱 난좌용기	비닐 포장
홍보키워드	‘꽃감’, ‘감코리아’	‘반건시’, ‘감’	‘꽃감’
판매처	Market-q	Komart	Komart
제품사진			
가격	15.85호주달러(한화 약 13,955원)	12.39호주달러(한화 약 10,909원)	20.50호주달러(한화 약 18,050원)
중량(수량)	150g	500g	450g
포장 형태	플라스틱 난좌용기	플라스틱 난좌용기	플라스틱 난좌용기
홍보키워드	‘꽃감’, ‘감코리아’	‘꽃감’, ‘한국’	‘반건조 감’
판매처	Market-q	해피마트	Kanzi mall

*출처: www.market-q.com.au, www.komart.com.au, https://happymart.com.au, https://kanzi.com.au((검색일: 2023.06.13.~2023.06.16.)

- 주요 경쟁제품 중 일본산 제품이 100g 당 12.9호주달러(한화 약 1만 1,360원)로 단가가 가장 높음
- 이어서 호주산 5.7호주달러, 한국산 2.5호주달러에 판매 중

〈표 III-4〉 건조감 경쟁제품 가격 비교

	(단위: 호주달러/100g)		
	원산지	가격(호주달러)	중량
호주	5.7	8.50	150g
일본	12.9	90	700g
한국	2.5	12.39	500g

*주: 원산지별 대표 제품 선정

□ 상대적은 낮은 인지도 및 소비규모로 호주 내 자국산 소비 증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개

- 연간 호주 소비자는 1인당 0.14kg의 감을 소비¹²⁾

- 사과(8.32kg), 바나나(14.37kg), 배(2.35kg) 등 대표적인 과실 보다는 소비 규모가 적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이국적인 과일로 인식
 - 호주 원예혁신협회 마케팅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는 퍼시몬 오스트레일리아 (Persimmons Australia)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는 감 외형을 보고 설익은 토마토와 혼동하는 등 다른 과실류 대비 인지도가 아직까지 낮은 편
 - 전체 호주 가정의 9%가 감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한번 구매 시 평균적으로 455g씩 구매
 - 감을 구매한 소비자는 주로 샐러드, 치즈 플래터 등으로 생식하거나 제과 또는 제빵 재료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임
- 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이뤄짐
- 호주 원예혁신협회는 호주산 감 홍보대사(Poh Ling Yeow)를 선정하여 감 손질 및 저장방법, 레시피 등을 소개하였으며, 감의 건강 상 이점과 섭취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지도 및 이해를 높이는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을 전개¹³⁾

〈그림 III-2〉 호주 감 홍보 예시



*출처: www.persimmonsaustralia.com.au(검색일: 2023.06.16.)

3. 수출입현황

□ 한국산 신선감 및 건조감 영향력은 다소 미미한 수준

- 한국산 신선감 수입비중은 매우 미미
- 2022년 호주의 신선감 수입금액은 189만 4,000달러(한화 약 233억 4,290만 원)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산은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 뉴질랜드산 공급

12) 호주 원예혁신협회(www.horticulture.com.au)

13) 호주 감 홍보 유튜브채널(www.youtube.com/watch?v=BZLWtXgi9v8&ab_channel=PersimmonsAustralia)

〈표 III-5〉 호주 신선감 수입금액 추이(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2,052	2,082	1,712	2,520	1,894	100.0	-24.8	-2.0
1 뉴질랜드	1,943	2,077	1,655	2,491	1,876	99.0	-24.7	-0.9
2 칠레	0	0	0	-	18	1.0	-	-
3 대한민국	20	1	57	29	-	0.0	-100.0	-100.0
4 일본	4	4	0	-	-	0.0	-	-100.0
5 미국	86	0	0	-	-	0.0	-	-100.0

*주: HS코드 0810.70 (신선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6.13.)

- 신선감 수입단가는 kg 당 4.72달러(한화 약 6,051원)에 형성
 - 중국산(6.00달러), 뉴질랜드(4.71달러) 수준으로, 한국산은 2021년 기준 14.50달러(한화 약 1만 8,589원)로 높은 금액대를 형성

〈표 III-6〉 호주 신선감 수입단가 추이(2018~2022)

(단위: 달러/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3.95	3.56	4.18	4.94	4.72	-4.4	4.5
1 중국	-	-	-	-	6.00	-	-
2 뉴질랜드	3.98	3.56	4.06	4.90	4.71	-3.9	4.3
3 대한민국	20.00	-	28.50	14.50	-	-100.0	-100.0
4 일본	400	4.00	-	-	-	-	-100.0
5 미국	2.97	-	-	-	-	-	-100.0

*주: HS코드 0810.70 (신선감) 기준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6.13.)

- 한국산 건조 과실류 수입은 2021년 크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
 - 건조감을 포함한 건조 과실류 수입금액은 2022년 1,248만 6,000달러(한화 약 160억 705만 원)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한국산은 0.3% 비중을 차지한 4만 달러(한화 약 5,128만 원)으로 2021년에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내 기존 수입규모로 돌아가는 형태
 - 중국산(39.0%), 태국산(14.5%), 남아공산(12.9%) 등에서 주로 수입

<표 III-7> 호주 건조감 수입금액 추이(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11,934	13,271	11,541	10,893	12,486	100.0	14.6	1.1
1 중국	3,810	4,573	4,249	3,656	4,864	39.0	33.0	6.3
2 태국	1,259	2,618	2,083	1,640	1,805	14.5	10.1	9.4
3 남아공	1,516	1,096	1,207	1,286	1,608	12.9	25.0	1.5
4 미국	3,250	2,789	1,905	1,546	1,338	10.7	-13.5	-19.9
5 프랑스	26	469	128	221	609	4.9	175.6	120.0
6 독일	367	275	237	203	579	4.6	185.2	12.1
7 뉴질랜드	345	300	213	307	324	2.6	5.5	-1.6
8 페루	2	37	156	120	310	2.5	158.3	252.8
9 인도	318	196	270	329	241	1.9	-26.7	-6.7
10 튀르키예	124	133	154	153	152	1.2	-0.7	5.2
...								
16 대한민국	12	9	49	229	40	0.3	-82.5	35.1

*주: HS코드 0813.40-0039 (기타 건조 과실류) 기준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6.13.)

- 건조감 포함 건조 과실류 평균 수입단가는 kg 당 7.55달러 (한화 약 9,679원)로, 한국산 수입단가는 평균단가의 두 배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으로 형성
 - 2022년 한국산 수입단가는 kg 당 13달러(한화 약 16,666원)로 프랑스(77달러), 뉴질랜드(63달러), 독일(38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

<표 III-8> 호주 건조감 수입단가 추이(2018~2022)

(단위: 달러/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 세계	5.48	6.45	6.72	6.45	7.55	17.1	8.3
1 프랑스	22	28	49	45	77	71.1	36.8
2 뉴질랜드	20	47	57	60	63	5.0	33.2
3 독일	27	34	41	26	38	46.2	8.9
4 대한민국	5.54	2.62	12	16	13	-18.8	23.8
5 페루	10	10	10	9.34	11	17.8	2.4
6 중국	7.92	8.24	8.49	7.85	8.67	10.4	2.3
7 태국	3.76	7.25	6.92	5.99	8.44	40.9	22.4
8 미국	4.97	4.7	7.38	6.55	7.57	15.6	11.1
9 튀르키예	6.53	3.65	4.61	4.91	5.19	5.7	-5.6
10 남아공	3.87	4.49	4.37	4.26	4.39	3.1	3.2
11 인도	2.76	2.59	2.52	3.14	2.62	-16.6	-1.3

*주1: HS코드 0813.40-0039 (기타 건조 과실류) 기준

*주2: 수입 상위 10개국산 및 한국산의 수입단가 비교(전체 수입국의 수입단가 순위는 상이할 수 있음)

*출처: ITC Trademap(검색일: 2023.06.13.)

- 한-호주 FTA 활용 시 무관세로 수출 가능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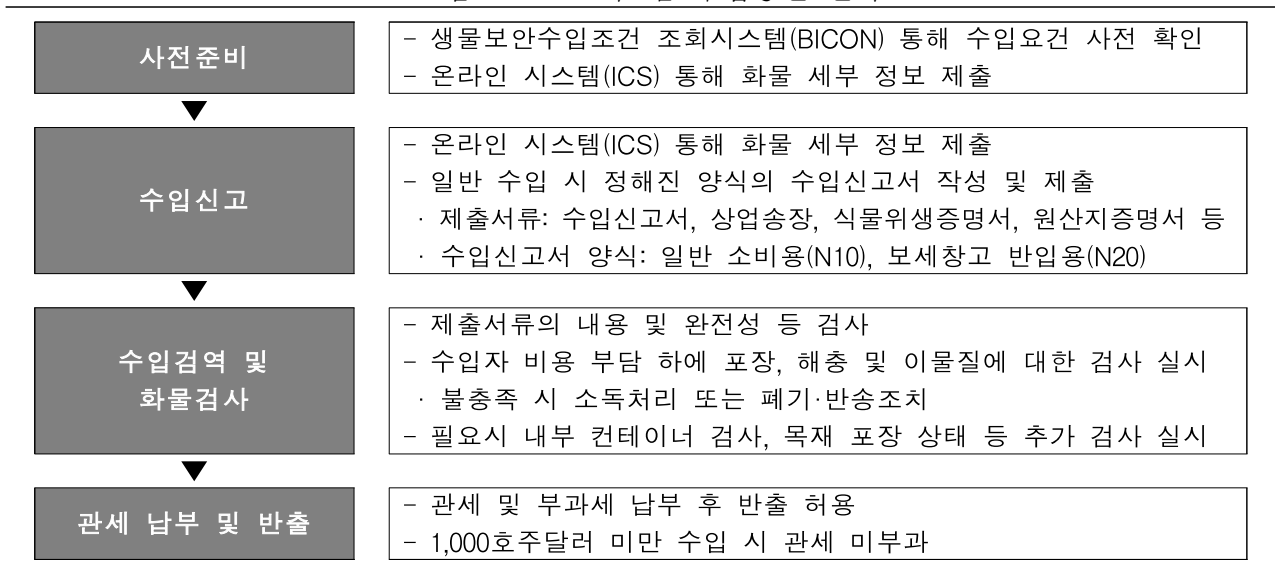
14) 호주 국경수비대(www.abf.gov.au)

- 호주는 신선감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여 FTA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며, 건조감의 경우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한-호주 FTA 활용 시 무관세 수출 가능

4. 통관 및 수입제도

□ 감 수입통관 절차는 ‘사전준비 → 수입신고 → 수입검역 및 화물검사 → 관세 납부 및 반출’ 순으로 진행

<그림 III-3> 호주 감 수입통관 절차



*출처: 호주 국경수비대(www.abf.gov.au), 농림수산업부(www.agriculture.gov.au)

○ 對호주 수출 시 단감 수출검역요건 충족 필요¹⁵⁾

- 지정된 전문 생산단지 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에서 생산·포장할 것을 요구하며, 등록된 과수원에서는 감꼭지나방과 잣빛무늬병, 깍지벌레 등에 관한 위생관리 조치를 이행
- 수출업체는 對호주 수출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여 검역 합격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식물검역증명서에는 특정 문구¹⁶⁾가 부기되어야 하며 필요시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을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과수원 등록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화물당 포장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를 기재

15) 한국산 가공용 양과 및 배·감·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시행 2019. 6. 28.]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43호, 2019. 6. 28., 일부개정]

16) The persimmons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produc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fresh persimmon fruit to Australia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s

- 감꼭지나방 제거를 위해 훈증 소독한 경우 해당 내용¹⁷⁾을 부기하며, MB훈증 여부에 관계없이 이물질 제거방법¹⁸⁾을 기재
- 수출된 감은 호주 농수산업부(DAFF)의 수입검역을 받아야 하며, 위생 안전 등 규정 위반 시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됨에 유의

□ 주요 정보를 라벨에 표시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방법에 유의

- 제품 유형별 요구되는 라벨 표시 항목에 각별한 주의 필요
 - 신선감 수출 시 개별 포장 상자에 과수원 등록번호, 원산지(한국), 수출업체명, 포장일자 및 포장시설 등록 번호, 목적지 등 표시 필수
 - 감 가공품에는 제품명, 성분 목록 및 알레르겐, 영양성분, 원산지, 유통업체 상호 및 주소, 유통기한 등을 표시
- 2018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감을 포함한 과실류에는 원산지 표시 필수
 - 재배(Grown)·생산(Product)·제조(Made)·포장(Packed)된 원산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며, ▲캥거루 로고(호주산에만 표시) ▲막대 차트(호주산 재료비중) ▲원산지 진술을 포함

<그림 III-4> 호주 원산지 라벨링 항목 및 예시



*출처: www.accc.gov.au, www.royfarms.com.au

□ 병해충 관리 및 농약 사용에 유의하여 안전한 제품 수출 필요

- 우려 병해충으로 지정된 해충이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및 소독 요구

17)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fumigated with methyl bromide for disinfestation of Stathmopoda masinissa(persimmon fruit moth)

18)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cleaned using {specify procedure}

- 호주 농림수산업부는 ▲감꼭지나방 ▲감나무애응애 ▲잿빛무늬병 등을 검역병해충으로 지정, 호주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감독
-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코드(FSC)에 명시된 감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 준수

〈표 III-9〉 호주 감 위생안전(잔류농약) 기준치

물질명	최대한계	물질명	최대한계
Acetamiprid	T0.3	Glyphosate	0.05
Buprofezin	1	Imidacloprid	T1
Chlorfenapyr	1	Kresoxim-methyl	5
Chlorothalonil	T5	Methomyl	T0.05
Chlorpyrifos	T1	Methoxyfenozide	1
Clothianidin	2	Propiconazole	T0.2
Cyfluthrin	T0.1	Pyriproxyfen	T0.2
Cypermethrin	T0.2	Tebuconazole	2
Fluopyram	1.5	Trifloxystrobin	1.5

*출처: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 Schedule 20 - Maximum residue limits」, 호주법률포털(www.legislation.gov.au)

IV. 시사점

□ 3개국 모두 감을 유통 및 소비하고 있으나 국가별 상이한 특징을 보임

〈표 IV-1〉 국가별 감 시장현황 비교

구분		세부 내용
일본	생산현황	- (신선감) 연간 21만 톤 이상 생산('22), (곶감) 8,000톤 이상('17) - 품종 개발 및 기계 보급 등 지원 정책으로 생산성 증대
	유통 및 소비현황	- 감이 출하되는 9월 말부터 도소매 채널에서 유통되기 시작하며, 건조감은 건조 과정을 거쳐 11월경부터 출하 - (자국산) 압도적인 유통비중을 차지하며, 산지 및 품종을 강조 - (수입산) 중국산은 업무용 대용량 제품 유통, 자국산 대비 비중 미미 - (한국산) 감말랭이, 냉동 반건시 제품 위주로 판매되며 특히 '청도' 등 산지를 강조 한 제품이 다수 유통되며 인지도를 형성
	수출입현황(' 22)	- (신선감) 1만 6,000달러 수입, 전년 대비 82.6% ↓ · 뉴질랜드산(75.0%) > 한국산(25.0%) 순 - (건조감) 306만 1,000달러 수입, 전년 대비 26.7% ↓ · 중국산(56.3%) > 한국산(41.0%) > 튀르키예산(1.9%) 순
	통관 및 수입제도	- 곶감 수출 시 식물위생증(PC) 발급 필수 - 미생물 기준 위반한 수입산 다수 적발,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
미국	생산현황	- 15,000톤 이상 생산, 뽕은감 품종은 '하치야' 등 생산
	유통 및 소비현황	- 농산물 직판장 또는 식료품점 중심으로 유통 - (자국산) 신선감은 단감 품종 위주, 건조감은 완전 건조한 감 칩 형태 제품이 다수 - (수입산) 일본산 및 중국산은 곶감과 유사한 제품 유통. USDA 유기농 인증 취득 또는 건강한 간식을 중점 홍보 - (한국산) 주로 감말랭이·곶감·홍시 판매, 뽕은맛 및 식가에 익숙하지 않아 인지도가 아직 형성되는 과정
	수출입현황(' 22)	- (신선감) 347만 달러 수입, 전년 대비 35.5% ↓ · 스페인산(48.4%) > 이스라엘산(28.1%) > 칠레산(21.4%) 순, 한국산은 2020년 이후 수입되지 않음 - (건조 과실류) 4,372만 9,000달러 수입, 전년 대비 8.2% ↑ · 중국산(43.0%) > 태국산(11.2%) > 베트남산(7.0%) 순, 한국산 2.2%
	통관 및 수입제도	- 수출 전 미 FDA에 시설 관리 및 수출검역요건 준수 필수 - 살충제 기준 위반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잔류허용기준 준수에 유의
호주	생산현황	- '부유'·'지로' 등 품종 3,462톤(1,730만 달러) 생산 - 생산자로부터 부담금 거둬 RnD 및 마케팅에 투자
	유통 및 소비현황	- 대형 및 로컬 오프라인 채널 및 온라인 채널 통해 유통 - (자국산) 신선감은 소매 유통채널로 대부분 공급, 원산지 강조 - (수입산) 일본산 곶감은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시장 형성 - (한국산) 대도시 소재 오프라인 채널 중심으로 유통, 한국산 강조
	수출입현황(' 21)	- (신선감) 189만 4,000달러 수입, 전년 대비 24.8% ↓ · 뉴질랜드산(99.0%) 수입, 2022년 한국산 수입 확인되지 않음 - (건조 과실류) 1,248만 6,000달러 수입, 전년 대비 14.6% ↑ · 중국산(39.0%) > 태국산(14.5%) > 남아공산(12.9%) 순, 한국산 0.3%
	통관 및 수입제도	-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검역병해충 관리 등 단감 수출검역요건 충족 및 잔류허용기준에 유의하여 농약 사용 - 원산지 표시 규정 및 방법에 주의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ITC Trademap(www.trademap.org)
2	산림청 입산물 수출입통계(www.forest.go.kr)
3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4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5	농촌진흥청 일본 수출용 밤 농약안전사용 지침(www.nongsaro.go.kr)
6	농촌진흥청 미국 수출용 밤 농약안전사용 지침(www.nongsaro.go.kr)
7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
8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시행 2019. 10. 14.]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70호, 2019. 10. 14., 일부개정]
9	한국산 가공용 양과 및 배·감·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시행 2019. 6. 28.]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43호, 2019. 6. 28., 일부개정]
10	일본 농림수산청(www.maff.go.jp)
11	일본 후생노동성(www.mhlw.go.jp)
12	일본 통계청(www.e-stat.go.jp)
13	일본 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www.ffcr.or.jp)
14	일본 세관(www.customs.go.jp)
15	일본 도쿄 중앙도매시장(www.shijou-tokei.metro.tokyo.lg.jp)
16	일본 카나자와 중앙도매시장(www.maruka-ishikawa.co.jp)
17	일본 미나미 신슈 JA전농(www.ja-mis.iijan.or.jp)
18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www.rakuten.co.jp)
19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https://shopping.yahoo.co.jp)
20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www.qool0.jp)
21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https://my-best.com)
22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https://store.mahorobashop.jp)
23	일본 온라인 유통채널(https://yellmall.jp)
24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서비스(https://cat.ams.usda.gov)
25	미 농무부 입업서비스(www.fs.usda.gov)
26	미국 식품의약국(www.fda.gov)
27	미국 관세국경보호청(www.cbp.gov)
28	미국 농업마케팅자원센터(www.agmrc.org)
29	미국 온라인 농산물 유통채널(www.groworganic.com)
30	미국 온라인 유통채널(www.amazon.com)
31	미국 대형마트(www.walmart.com)
32	미국 온라인 농산물 유통채널(www.bellaviva.com)
33	미국 감 농장(www.froghollow.com)
34	미국 감 농장(www.ohnuts.com)
35	미국 한국식품 유통채널(www.omonausa.com)
36	미국 한국식품 유통채널(www.kimcmarket.com)
37	미국 한국식품 유통채널(www.hanyangmart.com)
38	미국 한국식품 유통채널(www.wooltariusa.com)
39	호주 농수산임업부(www.agriculture.gov.au)
40	호주 원예혁신협회(www.horticulture.com.au)
41	호주 국경수비대(www.abf.gov.au)
42	호주 경쟁및소비자위원회(www.accc.gov.au)
43	호주 대형마트(www.woolworths.com.au)
44	호주 감 농장(www.avianipersimmonfarm.com.au)
45	호주 감 농장(www.harrisfarm.com.au)
46	호주 감 농장(www.royfarms.com.au)
47	호주 온라인 농산물 유통채널(www.tropicalharvestqld.com.au)
48	호주 일본식품 유통채널(int.japanesetaste.com)
49	호주 한국식품 유통채널(www.market-q.com.au)
50	호주 한국식품 유통채널(www.komart.com.au)
51	호주 한국식품 유통채널(https://happymart.com.au)
52	호주 한국식품 유통채널(https://kanzi.com.au)
53	호주 원예혁신협회 감 홍보 사이트(www.persimmonsaustralia.com.au)
54	호주 감 홍보 유튜브채널(www.youtube.com/watch?v=BZLWtXgi9v8&ab_channel=PersimmonsAustralia)
55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 Schedule 20 - Maximum residue limits」, 호주법률포털(www.legislation.gov.au)